

보도일시

2025.5.14.(수) 배포 즉시

담당처

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<진짜 대한민국>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(단장 : 박범계)

김문수 후보 유튜브 슈퍼챗 불법성 알면서도 받았다

- 2019년 3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“선거법 때문에 ‘슈퍼챗’ 기능을 꺼냈다”고 말해
- 2019년 2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인의 유튜브 슈퍼챗 위법성 적극 경고
- 박 단장 “겉으로는 슈퍼챗 후원 받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나”

□ 김문수 국민의힘 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지난 2019년 언론사 인터뷰에서 “선거법 때문에 ‘슈퍼챗’ 기능을 꺼냈다” 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.

김 후보가 슈퍼챗 기능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.

□ 김 후보는 지난 2019년 3월 19일자 이데일리 ‘[보수와 유튜브]② 구독자58만 신의한수, 신홍강자 김문수TV 직접가보니’ 제하의 기사에서 “선거법 때문에 ‘슈퍼챗’ 기능을 꺼냈다”며 “임대료와 인건비, 투자비 등을 감안하면 돈이 남지 않는다” 고 말했다.

□ 한편, 김 후보의 인터뷰 시기 즈음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슈퍼챗 수수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.

□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의 인터뷰에 앞선 같은 해 2월 22일 정치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,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‘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’ 공문을 발송했다.

해당 공문은 정치인을 상대로 한 소셜미디어 시청자의 금전제공은 정치자금법상 ‘기부’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소지가 있어 유의하라는 내용을 담았다.

□ 또 이에 앞선 2월 초 선관위는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유튜브 채널인 ‘TV홍카콜라’ 측에 슈퍼챗을 잠정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.

□ 결과적으로 김 후보는 정치인 슈퍼챗 후원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▲ 2019년 5556만 원 ▲2020년 5894만 원 ▲2021년 4092만 원 등 슈퍼챗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으로 추정되는 1억 7564여 만 원을 받아 챙겼다.

□ 박범계 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“국민의 힘은 위법성이 없다고 강변하지만, 정작 김문수 후보 본인은 2019년에 이미 문제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. 정치인 슈퍼챗 후원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대외적으로는 그 기능을 차단했다고 하면서 뒤로는 거액의 불법적 정치후원금을 수수한 것”이라며 “청렴결백한 정치를 표방하던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더해 거짓말, 말바꾸기 본색까지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”고 일갈했다.

□ 박 단장은 또 장예찬 전 최고위원 사례를 들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해명에 대해서도 “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경우 소액, 단기간이어서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는데 대한 피의자 인식이 없어 고의가 부정됐다”면서도 “김 후보는 지난 2019년 인터뷰에서 이미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슈퍼챗 기능을 비활성화시켰다고 말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차원이 다른 사건”이라고 부연했다. <끝>

【붙임 : 김문수 후보 2019년 3월 19일자 이데일리 인터뷰 캡처】

김 전 지사는 아직 유튜브 생방송의 장점인 실시간 소통은 힘들다고 고백했다. 김 전 지사는 "(빠르게 올라오는 글의) 큰 흐름을 보는 수준"이라고 말했다. 김문수TV

의 월 클릭은 500만 정도. 김 전 지사는 "선거법 때문에 '슈퍼챗' 기능은 꺼놔다"며 "임대료와 인건비, 투자비 등을 감안하면 돈이 남지는 않는다"고 너털웃음을 지었다.